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4주일

제32권 10호(나해) 2012-1-29

[묵상]



더러운 영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과 상관없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저희들이
당신과 상관없이 살고 싶은 것은
저희 영혼이 더럽기 때문인가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는 악령에게
조용히 하고 떠나라고 이르십니다.
악령으로부터의 고백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고백은
악령이 내뱉는 두려움에 찬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도 못하고
영혼이 깨끗하지도 못한 저희들의
주님! 주님! 이라고 외치는 소리에는
'조용히 하여라.'는 꾸짖음만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언행이 권위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스스로 높여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권위 있는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목말라하고 계십니다.

-樞-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M.E. Sharing(3째주)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 (작수달 4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매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 울뜨레아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특전미사	(생) 정해홍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 김용팔 다두, 박기진 이나시오, 박영춘 안토니오, 박동옥 요셉, 유점이 베로니카, 고준희 제임스, 신태동 요아킴, 송기인 요셉, 이용완 & 홍숙녀 마리아, 김인영 베드로, 이승림 요셉 & 이석은 마리아, 이상일 요셉, 윤인숙 마리아나 & 한태동 요한 (생) 전안나 & 전복래 테레사 가정, 이정숙 루시아, 홍광선 요셉, 김시연 아가다, 신대철 알베르토, 송호창 요셉 & 송호민,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장정진 베로니카 가정, 김우용 시몬 & 김문선 미리암 가정, 우영희 엘리사벳, 지승준 토마스, 정학순 발바라, 김재영 프란치스코, 김정석 베드로 가정, 토런스 서 3만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요나(Jonah) 3,1-5.10

화답송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마라.”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 와 앞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프리마에서처럼, 마짜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1 Corinthians) 7,32-35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어둠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복음 마르코(Mark) 1,21-28
영성제송 주님,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18	241	249
봉헌	257	261	272
성체	291	309	291
파견	196	196	218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말씀하시는 하느님

하느님 말씀과 성령

이 증언은, 독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성령 청원 기도’
(epiclesis)의 형태로 성령을 부르는 고대의 기도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당신의 위로자 성령을 보내 주시어,
우리가 그분께서 감도하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하소서. 제
가 성경을 합당하게 해석하게 하시어, 여기 모인 신자들이 유
익을 얻게 하소서.” 또한, 강론 끝에 다시 하느님께, 신자들에
게 성령을 보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
원하시는 하느님,…… 이 백성을 위하여 청하오니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소서. 주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찾아오시고 모
든 이의 정신에 말씀하시어, 그들의 마음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영혼들을 당신께로 이끄소서. 자비의 하
느님.”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는 이들의 마음
안에서 활동하시는 위로자께 자신을 열지 않고서는 말씀의 의
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성전과 성경

17). 성령과 하느님 말씀 사이의 깊은 연관을 재확인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 살아 있는 전통과 성령의 의미와 결정
적인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실상, 하
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기
에”(요한 3,16), 시간 안에서 발현된 하느님의 말씀은 결정적
으로 교회에 선사되고 “전수”되었습니다. 이로써 구원의 선포
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게 되
었습니다.

게시 현장「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예수 그
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이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면
서, 먼저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되고 당신께서 성취하시고
친히 전파하신 복음을 모든 진리와 윤리 규범의 원천으로 모
든 이에게 선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충실히 이행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그분과
함께한 공동생활에서 받은 것과 성령의 조언에 힘입어 배운
것을 설교와 모범과 제도로써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도
들과 그 직제자들은 성령의 감도로 구원의 소식을 기록하였습
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도들에게서 기원하는 이 성전
이 살아 있고 역동적인 실재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성령의 도
우심으로 교회 안에서 발전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진리가
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속>

이게 어찌된 일이나?

오늘 복음에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하며 몹시 놀랍니다. 심지어 더러운 영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맙니다. 비단 오늘 복음 말씀이 아니더라도 복음서의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백한 세례자 요한의 증언에서, 기회 닿는 대로 예수님을 올라미에 씌우려고 했던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는 광분한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는 예수님의 담대함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권위를 보게 됩니다. 더러운 영들이야 영적 존재이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있어 그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의 신성을 볼 수 없었던 인간들도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요? 그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러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참다운 권위란 바로 사람들을 위한 진실한 사랑과 섬김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권위를 부여받고 싶어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쟁기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보다는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율법학자들도 군중도 바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섬김의 자세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진정성과 권위를 보았던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 교

교사들의 가르침에 감동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던 그들에게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보기에 놀랍고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다가왔을 것이며 자발적인 복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줄 때,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권위는 사랑과 존중에서 나오고 그런 권위라야만 사람을 감화시키고 자발적으로 일하게 합니다. 권위(authority)는 권력(power)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위란 난해한 용어를 쓴다고 해서, 화려한 제목을 입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좀 더 굽실거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해서가 아님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수도회에서 권위의 봉사를 수행해야 하는 장상의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할 만한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만 참다운 권위를 가질 수 있음을 서도 바보처럼 잘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형제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줄 때가 있을까요?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새롭고 위 있는 가르침이다.”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

성바오로수도회 준관구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갈유현 미카엘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서현수 올리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은지 릴리안	신덕례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올리아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구역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속에 성화하는 백삼위"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2월

◆ 명지봉성체 : 2일(목) 오전 10시

◆ 성시간 : 2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 토런스 북구역

◆ 성모신심미사 : 4일(토) 오전 8시30분

◆ 2011년(작년)교무금/성전헌금 봉헌내역 가정통신문 발송
작년 한해동안 봉헌해주신 교무금과 성전헌금 내역 등을 담은 가정통신문이 오늘주일(29일)부터 교우여러분 각가정에 우송됩니다. 올해부터는 이 가정통신문의 봉헌내역을 인컴 텍스리턴을 위한 현금증빙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수록된 항목 이외의 기부금을 추가하실 분은 사무실 재무담당자에게 신청하십시오.

(주보6면 참조 : 2011년도 우리 본당의 살림살이 내역 게재)

◆ 주일학교 교사 단합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29일) 낮 12시 * 장소 : 고려정
- 문의 : 이인석 비오 교장 ☎(213)258-8665

◆ 주님 봉헌 축일 ... 제대로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오는 2월2일(목)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와 가정에서 쓰실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29일(주일)까지 사무실, 성물부 김막달레나
- 봉헌미사 : 2월2일(목) 오후 7시30분

◆ 소년복사단 월례모임

- 일시 : 2월4일(토) 오후 4시~6시
- 장소 : 성당
- 문의 : 황선희 그레고리오 ☎(424)903-6637

◆ 안나회 전신자들에게 점심 무료 대접

- 일시 : 2월5일(주일)
- 장소 : 친교장

● 메뉴 : 콩나물시래기 건강국밥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장 ☎(310)738-4387

◆ '성경공부'(그룹반) 개설

● '마르코 복음' 기초('렉시오 디비나'의 방법)

● 시작하는 날 : 수요일- 2월8일 오전 10시

금요일- 2월10일 오전 9시30분

● 장소 : 사무실 앞 강의실

● 동반자(지도) : 본당 수녀님

* 2월5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론 청년회 기도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매달 2번째, 4번째 수요일 오후 7시30분 미사후

● 장소 : 성체 조배실

● 준비물 : 성경

● 문의 :곽수민 히메리오 청년회장 ☎(310)944-4579

◆ 백삼위 골프회 2월 정기 토너먼트

● 일시 : 2월18일(토) 오전 9시

● 장소 : Skylink 골프코스(롱비치)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골프회장 ☎(213)272-3598

◆ 2011년도분 세금보고 세미나(사회복지분과 주최)

● 일시 : 2월19일(주일) 낮미사와 친교점심후

● 장소 : 강당, 백삼위본당 전신자 대상

● 강사 : CPA 채양석 막시밀리언 콜베

● 세미나 내용 : 소득기준, 공제항목, 인적공제, 크레딧, 소셜시큐리티 베너핏 과세대상금액, Capital Gain or Loss, 해외금융자산보고 등

● 문의 : 차인수 안드레아 사회복지분과장 ☎(310)256-6001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월29일(주일) : PV 1반(육개장 \$3)

주일학교(6학년 카레라이스)

● 2월5일(주일) : 안나회(콩나물시래기국밥 \$무료)

주일학교(5학년 치킨볶음밥)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권오상	김우용	김윤진	김재영	김찬구
	김철민	문충한	박광자	박봉성	박영룡	박완철
	서성용	신순철	안민수	안재만	안태갑	양영관
	엄혜은	유영균	이숙화	이은록	이호순	이희영
	익명	정연영	장해홍	조소영	주대중	주재욱
	채양석	황지영	최상만	최수복	한혁수	송마이클
합계 : \$3,500						
미사헌금 : \$2,850						

성전헌금	고천용	권오상	김우용	김윤진	김찬구	김철민
	문충한	박광자	박봉성	박영룡	박완철	서성용
	신순철	안민수	안재만	안태갑	양영관	엄혜은
	유영균	이숙화	이은록	이일길	이호순	이희영
	익명	정해홍	주대중	주재욱	채양석	황지영
	최상만	한혁수	송마이클			
합계 : \$2,460						
감사헌금 : 이인석						
한남체인 도네이션 : \$480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신약성경 복음서 쓰기 경연대회

- 기간 : 2월1일(수)~3월31일(토)까지
- 제목 : 요한복음(영어), 노트 제공
- 대상 : 3학년~12학년 *시상 : 부활대축일 미사중(4월8일)

◆ 중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9일(금)~3월10일(토), 장소 : 백삼위 본당
- 준비물 : 성경, 묵주, 미사헌금, 슬리펍백, 재킷, 주일학교 티셔츠, 세면도구
-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 3월30일(금)~4월1일(주일)
- 장소 : 꽃동네 피정의 집(37855 Highway 79 S. Temecula)
- 대상 : 9~12학년 * 참가비 : \$60(3월1일 이후 신청은 \$80)
- 준비물 : 성경, 묵주, 슬리펍백, 재킷, 주일학교티셔츠, 세면도구, 미사헌금 * 문의 : 황 교무주임 ☎(424)903-6637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참가비 : \$190(접수 : 주일학교 교사실)
- 신청마감 : 2월28일까지 선착순 30명(Deposit \$20)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담당 교사 ☎(310)709-3343

◆ SAT II한국어 시험 준비반 모집

- 대상 : 2012년 11월 첫째주(토)에 예정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9학년 이상)
- 모집기간 : 1월30일까지(5명 이하인 경우 최소됩니다.)
- 신청 :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실
- 문의 : 김본경 올리아 교장 ☎(310)713-2669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접수중입니다.

남가주 소식

◆ 장애인 후원을 위한 작은 예수회 '1일 점심·차' 행사

- 일시 : 2월4일(첫토요일) 낮 12시~오후 2시
- 장소 : 작은 예수회 LA 장애시설(올림픽+후버)
- 미사 : 낮 12시에 장애인 및 후원회 가정을 위한 봉헌
- 문의 : 운영이사 노장오 요셉 ☎(213)387-3301

◆ 영화와 함께 하는 피정(Retreat with Movie)

- '영화와 함께하는 피정'은 대중영화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체험해 보려는 시도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 올해의 일정 : 2월~5월 매달 세번째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영화감상 및 나눔 피정)
- 장소 : 성 프란치스코 성당 ☎(310)324-8159
- 지도 : 황광우 요셉 신부(성모기사회 북미주 지도)
- 피정비 : 1인 \$20(김밥 제공)

소공동체 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1/13(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14(토) 오후 7시 성당장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녜스 989-0366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21(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윤화경 바오로 316-7819 1/14(토) 오후 6시
	3	권영옥 루시아 713-7779	권영옥 루시아 720-2876 1/9(월)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산나 320-0855	오창애 안나 974-2857 1/20(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안혜진 세레나 634-6923 1/12(목) 오전 10시30분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이재용 안드레아 994-6782 1/14(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병태 요셉 999-1448 1/13(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7871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최벨라멧다 213-718-0310 1/14(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송중두 요한 544-1267 1/13(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배재일 미카엘 544-9460 1/6(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20(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1/10(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2011년 한 해 백삼위 본당 공동체의 살림살이

(단위:달러)

교무금				성전 헌금		
수입	미사헌금		155,268.75	성전헌금		140,765.00
	2차헌금	(은퇴 수도자 기금 포함)	12,588.00	기타	감사헌금	11,961.14
	교무금		233,445.00		Recycling	440.58
	기타	성당 대여료 & 주보/달력 광고비 & 기타	15,195.00		기타 수입	10.00
	기부금	한남체인/ 재해 의연금 / 안나회 동전 등.	8,040.00	소계		153,176.72
		구유 예물/성지 보존/선교 후원비	14,185.00			-
		사순 애금(교구청Together in Mission)	8,251.00		100.00%	-
	100% 수입총계		446,972.75	수입총계		153,176.72
지출	인건비	급여, 활동비, 주거비, 의료 보험 등..				
	22.60% 소계		101,094.18			
	사목비	전례비, 행사비, 홍보비, 산하단체 보조비	43,466.19			
		주일학교/한국학교 지원비	32,272.02			
		종교 교육비/ 회의 & 피정비	5,939.55			
		전교비/자선비/기타 기부금	35,281.60			
		26.20% 소계	116,959.36	LOAN PAYMENT:		
	관리운영비	공공 요금 (사제관 포함)	48,444.85	(월셔은행)		
		관리수선, 소모품, 도서구입, 은행수수료	87,926.74			
		세금: 급여세, 재산세 & 보험	39,302.45	83.48% 소계*		
		차량 유지비, 장비 대여 & 구입비	14,990.24	* Interest(이자)		
		42.70% 소계	190,664.28	Principal(원금 상환)		
	잡지출	가톨릭 방송(KCBC)지원비/경조사비	2,300.00			
		0.50% 소계	2,300.00			
	92% 지출총계	본당 경상 순 지출:	411,017.82	지출총계		
2011년 결산잔액 (본당 경상 순 수입, 지출 결산: 8%)			35,954.93	2011년 결산 잔액: 16.52%		
12/ 31/ 2011기준 교무금 은행 잔고(Wilshire Bank)			271,565.58	12/ 31/ 2011 기준 성전헌금 은행 잔고		
미 지불 체크(Uncleared Checks & Payments)			20,696.16	중앙 은행 (Center Bank)		
참조: Transfer : 중앙은행 성전 헌금 잔고 총액 태평양은행으로 이전				태평양 은행 (Pacific City Bank)		
Petty Cash 보관			200.00	합계:		

12/ 31 / 2011 기준: 성전 건축비 융자 빚(Loan Balance): USD

1,595,236.09

12/ 31 / 2011 기준: 익명으로 봉헌하신 '백삼위 장학 기금' 2만달러는 중앙은행에 예치 되어 있습니다.

*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 비용 봉헌 : 2011년

봉헌 총액: \$82,140.00 / 지출 총액: \$76,808.00 (기금 잔액은 '야외 14처' 관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2011년 한 해동안 봉헌하여 주신 공동체 교우 모두의 수고와 정성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